



성도의 벗

5월호

## 목차

권투업(선교부장) .....	3
예언자의 말씀(대관장) .....	5
나의 제언(김종균) .....	9
동서 결혼관의 차이(이영범) .....	12
보이스카우드의 활동(카우리 부장) .....	19
내 이웃에게도 축복을 나누자(배영천) .....	23
한국 선교부 주최 농구대회 참관기 .....	25
계보 위원회 소식 .....	27
음악지도자 도입을 마치고(점대관) .....	30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윤덕병) .....	33
우리 어머니(유옥차) .....	36
한국 지방대회를 마치고 .....	37
배움의 등불을 찾아서 .....	39
해외 소식 .....	41
하와이에서 온 편지(안삼인) .....	42
각 지부 소식(부산지부) .....	45
침례자 명단 .....	46

\*\*

\*\*

\*\*

표지 설명:

아픈신권 회복기념 동상

# 卷 頭 言 Editor's Page



## 침례, 왜?

宣教部長 裴 一 文

선교사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이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발은 희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침례는 왜 받을까? 이 거룩한 의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의 성약된 백성들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약과 결의가 어떠한 것인가, 물몬의 샘에서 알파가 새로 개종한 우리들에게 말할 때 이러한 의문에 대답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쫓겨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할진대 (모사이야서 18장 9절 인용)

이상으로서 침례는 노력의 끝이나 회개의 끝이 아니고 미약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훌륭한 신앙과 덕과 지식과 극기와 경건함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며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들의 빛은 잠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신앙의 적은 행위가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며 우리가 계속 성실하다면 우리는 완성의 날로 진보할 것이다. 물론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듯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육으로 난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하며 어린아이 같이 되며 유순하고 온유겸손하여 입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시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치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

(모사이야서 3장 19절 인용)

그러므로 침례의 성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들 각자는 완전케 이를 때까지 참고 견디겠다는 약속과 성약을 하는 것이다.

침례의 원칙들은 속죄와 같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생활의 중요한부분을 차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豫言者의 말씀

# 어린 아이의 가치

大管長 데비드 오·멕케이

어린 아이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는 어떨습니까? 갓난 아기 때에 그 영은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갓난 아기의 영은 어린 몸으로 살고 있는 티없이 순수한 천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왔으며 잠시동안 육체로 이 지상 생활을 여러분과 더불어 살기 위해 왔으나, 영으로 그리고 부활

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이 순수한 영과 육체를 가지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갓난 아기와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순수하게 티가 없는한, 그들은 영계이든 우리가 온 곳인, 하나님의 면전에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린 아이처럼 티없이 순수하게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티없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순수하고 곱게 자신을 지킨, 한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읍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그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없었으므로, 해마다 그녀가 성전에 갔을 때 울부짖었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선 온 세상에서 다시 없는 가장 훌륭한 축복이라 믿었으며 실제로 그러하였읍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 상 제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였읍니다:

"...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대지

아니 하겠나이다 ... " (사무엘 삼 1장 11절)

사무엘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데려가게 되었으며, 한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 삼 1장 28절)

그리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 삼 1장 28절)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고, 대제사장 엘리가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삼 제3장 4절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तो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तो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तो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함 때라

"여호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तो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

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 상 3장 5-9절)

어찌하여 주님은 성전에서 사무엘에게 일부분 나타내려 하시었습니까? 그는 순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구세주에게 데리고 와서 구세주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을 때 구세주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아이들은 어떠한 어린 아이들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들을 금하였으나 구세주께서는 몹시 서글피 여기시며 사도들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니라." (마가 10장 14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구세주께서는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니라" (마가 10장 14절)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어찌하여 그들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에 담배와 자극성 음료와 나쁜 기질을 넣어주고 좋지 못한 본을 보이므로서 그를 금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거하시므로

# 나의 提言

서부지부장 김 종 균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쉽다. 선협적인 존재로서의 습관이 없는 인간에게는 혼동 밖에 없다. 개인에게 습관이 있듯이 단체에도 관습이 있다. 그간 우리들은 불연속의 습관들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회원은 입내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이제는 되찾아야 할 미아가 된 이도 많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노라" 실로 이상한 인연으로 형제 자매로서의 인연을 맺었다. 혈통이 아니라 이해관계로서도 아니요, 취미로서도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영원하고 깊은 사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귄 많은 벗이 이제 어느 곳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소박한 교회 회원의 신심의 바탕은 진실이어야 하듯이 필경 이를 조화시키는 삼주가 있어야 했었다. 인간과의 대화가 끊기고 상호간의 동화력이 상실되어 고립된 탓으로 그 벗을 잃었다.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사귄에 얼마나 아침이 많았으며 밤샘이 많았는지 알 수 없다. 결핍과 무지가 빛어내는 비극적 오류와 그것이 야기시키는 파멸적 영향력이 우리의 우정을 크게 저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습관중에는 진실이 살아 있

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오래전에 감명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임무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 감사함과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송별회를 교회 회원들과 갖게 되었다. 그 모임중에 그 선교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장로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가장 중대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중대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 전도 생활중에 어려운 일도 많았읍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두렵고 당황했읍니다. 그러나 쉽게 잘 해결되곤 하였읍니다. 이때마다 내게 생각되는 한가지 일은 그것은 내 고향에 있는 벗들의 기도에 의해 이 어려운 일이 쉽게 해결되었구나 하는 절실한 느낌을 갖게 되었읍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 사이에도 있는지? 자신이 유혹에 이기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될 때 이것이 친구의 기도로 된 것이라고 참으로 경험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지? 친구를 위해 기도 할과 동시에 또 친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활을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귄을 갖는 생활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경건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디모데 전서 3장 15, 16절) 중심점을 상실한 군중들의 의지를 상실한 무리들은 자기의 실 땅에 정립하지 못하고 혼동 가운데 방황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토 사람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 하셨음"을 우리는 안다. 무작정 시간에 맡기는 남투합 계획은 나태한 습관을 조장한다. 부책임하게 쓰이는 "책임"이라는 말의 엄숙성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업의 자세로 돌아가 교회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신앙만을 갖기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의 말씀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는 나의 곁에 계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한 바울의 말씀은 기도의 습관이 모든 습관을 다 모두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

\* \* \* \* \*

" 광 고 "

지방부 상호부조회에서는 그간 각 지부에 두부씩 배당했던 영문판 "상호부조회지"를 1년 구독료 300원씩으로 신청자에게는 누구나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부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선착순으로 마감할 것이오니 속히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동서 결혼관의 차이

## 나성지역 한인지부장 이영범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제도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동서의 결혼관과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동양의 경우

동양에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여서 어려서 부터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분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혼처에 관하여 어렸을적부터 눈여겨 두어 때가되면 중매를 하여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배우자 선정의 표준에 있어서는 요사이는 점차 없어집니다 마는 궁합을 보고 또 어느집 후손이며 가문은 어떤 것인가를 고찰해 봅니다. 다음에는 남자가 일을하여 가정을 세우느니 만치 신량을 선정시는 학벌과 전공분야가 어떤 것이며 얼마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측정해 봅니다.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는 자녀를 육성하여 가능한면 아들을 많이 나서 자손을 퍼트리며 사회에 공헌하여 가문을 넓힐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된 다음에는 남녀의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고 일을하며 여자는 집안에서 가사를

돌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동등이라기 보다는 남편 중심이 원칙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뜻과 의견을 절대시 합니다.

### 서양의 경우

이에 비해서 서양의 그중에도 특히 미국에서의 남녀관계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동양과 여러모로 대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려서 부터 미국의 아이들은 남녀가 같이 자랍니다. 아무런 신비스러운 감촉이 없이 하나의 친구로서 같이 놀며 자연스럽게 학교의 모임에 참석하며 행동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고등학교를 나올무렵 심지어는 그 전에도 여학생이 뽀족구두를 신고 입에다가 뽀니를 바를 때면 남학생은 뽀뽀 작당하여 파티도하며 극장에도 가고 친척들도 방문합니다. 미국에서 이 과정을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할 때에는 다른 남녀와의 데이트를 끊고 단둘이서만 계속 데이트를 합니다. 이 과정을 스테디 데이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동안 일생을 같이 할 의욕이 생기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약혼 직후로 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배우자 선택의 방법이 정적이라면 서양의 방법은 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가만히있어도 부모나 친척들이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해 주지만 서양에서는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배우자를 택하여야 하고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택의 표준에 있어서는 구태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하였거나, 혹은 사회적 신분을 갖춘 사람만을 찾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상이 같고 서로가 존경할 수 있고 애정을 느낄 수 있을 때에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심지어는 여러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며 돈을 벌니다. 여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째 취미로서 하는 경우 셋째, 배운 기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환경적 조건에서 인지 미국인의 가정에서는 그릇을 닦는 남편, 밥을 쓰러주는 남편, 심지어는 아내보다도 요리를 잘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시장에도 같이 가며 빨래도 같이 가며 부부동반하며 놀러도 가고 물임에도 같이 갑니다. 동양에서 보는 자녀 중심이라기 보다는 부부중심의 가정이며 부부유별이라기 보다는 부부동등을 말하는 가정입니다.

이와같이 서로 다른 목적과 표준과 양식을 가진 동서의 결혼관은 어느것이 낫고 어느것이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서로가 장,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동양의 경우부터 고찰해봅시다.

#### - 동양의 장단점 -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이야기입

니다. 자기는 결혼시까지 여인의 손목한번 잡어본 일이 없었으며 깨끗한 그 마음과 그 손으로 자기의 아내를 처음 대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느 남자나 여자를 접촉해 본일이 없었던 처녀와 총각이 첫번만나 결혼식장에 섰을 때는 누구도 다녀가 버린일 없는 깊은 산중에 곱고 희게 쌓인 눈을 고히 고히 밟어가는 심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가본일 없는 별천지에 도달한 황홀감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젊은 남녀에게 모든 지식과 경험과 선견력이 풍부한 집안의 어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주는데는 혼자나가서 배우자를 찾는 남자와 여자보다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어주게 하며 실수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배우자를 택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택하여 주었다고 하지만 서로가 가까이 지내본 일없고 서로 사귀어본일 없는 두 개체인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자를 알아본일 없고 아내이외에 다른 여인을 알아본일이 없는 두 부부는 서로 같이 지내는 동안 슬게 사람에게 빠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은 더욱 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결혼관속에서 한가지 위험한일은 협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의욕과 결심과 아울러 앞으로 사랑을 믿고 기약하고 결혼을 출발하는 것이니 만큼 거기에는 모

험의 요소가 깃드려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모험이요, 결혼 자체가 모험이나 결혼 생활의 핵심인 부부의 사람을 모험의 전제로 둔다는 것은 모험중에서도 가장 큰 모험일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부의 생활이라 추운 겨울날 냉방에서 불꺼진 확로 불을 두고 사는 고독한 생활과도 같을 것입니다.

### - 서양의 장단점 -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따라 구속없는 환경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녀가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적, 사회적, 조건이 주워져 있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미국의 남녀들에게 주어진 특전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성을 하나의 친구로서 혹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생활의 혼련과 결혼후에는 풍성한 애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갈 수 있으며 여러사람을 대하는가운데에 그중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친구로서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며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배우자를 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자유가 허용되는 이사회에서는 미혼의 남녀에게 미치는 두가지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적유희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아울러서 미쳐지는 정신적 영향인 것입니다.

첫째 이십을 전후한 청소년들은 생에 대한 의문과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모험심이 강



하고 육체적으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느끼며 정력이 나날이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도를 벗어나 범하여서는 아될 지역에 이르게 되는일이 빈번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 많은 남자와 여자를 접하는 동안 어느 한계를 넘게 되면 정신적인 순정의 세계 혹은 동정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엄정의도가 깊을수록 달콤한 가운데에 감정에 반영되는 매력과 자극이 큼니다. 이런일이 생활의 주변을 스쳐갈 때마다 마음에 상처라면 심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 무엇인가 깨끗한 여인의 마음속에 거미줄같이 줄이 그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차례 쌓일 때에는 아내로서의 혹은 가정주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에 어려움 심적 상태에 이르게 되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심적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배우들이 정상적 가정 생활을 지탱못하고 이혼을 밥먹듯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정이란 한 포기 어린풀과 같아서 움기는일 없이 한확분에 고히 기를 때에 정상적 발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서양의 부부생활은 부부의 애정이 시발점 이요, 애정을 결혼생활의 중심으로 주장하는이만치 애정이식어 버릴 때면 이혼이라는 말이 대두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해서 동양의 결혼제도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 아니며 부부의 애정이 결혼의 시발점이 아니며 최후의 목적이 자손을 번창케하고 가문을 세우는데에 있느니 만치 어려운 일이 있

드라도 참아나가며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 결 론

결론적으로 동서양의 결혼관을 논하여 볼 때에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동서양의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쪽이 더 많을 것인가? 둘째 가정을 중심하여 제기된 사회적 문제는 비율적으로 어느 곳이 더 많은가? 여기에 첫째 해답으로서는 오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발표된 보고가 아직 없는채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의 해답으로는, 불량소년, 이혼한 사람들, 정신적 병태성을 가진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사십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수효는 서양이 동양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교의 초점을 여기에 둔다면 동양의 결혼 제도가 서양의 그것보다도 우수하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주 — 이 원고는 이곳 라성의 한인 문화방송을 통하여 가정시간에 보내드린 원고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 보이 스카우트의 활동

신교부장단 제1보좌 래이 지. 카우리

우리의 신앙개조 제 13조에 보면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회복된 교회에서 선입된 정책을 따르기 위해 대관장회에서는 1913년에 마치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란 것은 1913년에 마치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란 것은 1908년 영국에서 베이든 파우엘 경이 참시한 보이 스카우트 계획을 교회에 도입하여 후원하며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계획을 승인하고 교회 청소년 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이 조직에 활발하게 가입한 최초의 종교 단체였다.

베이든 파우엘 경은 영국군 장교로서 애급에서 복무하면서 이와같은 조직체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로하여금 이같은 생각을 품게 한 것은 병사로 애급에 파송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나라의 종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지 못했었다는 점이었다. 보이 스카우트 계획은 이 계획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강하고 훌륭한

인격과 튼튼한 육체를 갖추어 주려는데 있다. 그의 선견지명과 천재적 기질은 1908년 이래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의 계획이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젊은이의 생애에 유일한 영향을 끼쳐줌으로써 완전히 시험을 치른 셈이다.

우리 교회는 이 계획의 가치를 잘 인식한 최초의 종교단체일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채택한 어느 세계 어느 단체보다 가장 우수한 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간다. 최근에 대관장회에서 삼함회 보조 기관이 스카우팅 계획을 널리 이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였었다. 1960년에 대관장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말일성도의 모든 소년들은 컵 스카우팅, 보이 스카우팅, 익스푸토링 등을 포함 모든 스카우팅 계획에 참여하여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대관장단의 뜻이다."

이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발표된 다음 해인 1961년에는 교회의 회원들은 이 말씀에 호응하여 1965년에 나타난 통계와 마찬가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미국에서 스카우팅 단위부터 성장율이 24%나 증가하였다. 이 숫자는 적어도 미국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통계 수자는 교회 회원이 자기들의 지도자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분명하게 해주며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 2개월 동안에 7개 지부에서 각기 하나씩 컵스카우트 분대를 조직하였고 한국인 스카우트 대장을 임명하였으므로 이 대관장의 메시지에 호응하였다 할 수 있다. 스카우팅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우수한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이기도 했던 케이스 세들러 장로는 한국의 젊은이

를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쳤다.

1966년 5월 7일 선교부에서 새로이 임명된 스카우트반장들을 훈련시키는 모임을 가졌고 영화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게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지역의 스카우트 활동을 처음으로 선교부 운동장에서 가졌으며 가장 큰 흥미거리는 52분대 송파부대원 10명의 기술 시범이었다. 이 분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집회를 지닌 분대로서 42년간이란 역사를 자랑한다. 그들이 보여준 시범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천막치기, 기수 신호법, 응급치료법, 끈 매기, 다리 만들기 성냥없이 불만들기 등이었다. 말일성도 분대가 이에 겨루어 시범한것은 끈 매기 불만들기 등이었고 우승한 자에게 스카우팅 기구를 상으로 주었다. 그 날의 크라이 마스는 "웨이너"를 모두 구어먹는 것이었다.

송파 분대는 카우리 부장이 근무하는 주둔지 근처에 있어서 미군들이 제복, 스카우트 기구등을 주어 도와주었고 그보답으로 이 분대는 미군 주둔지의 미화 작업을 도와 6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1913년에 이루어 졌던, 지혜로운 결정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스카우팅은 신권회계 획과 정직, 순결등의 교훈을 보충시켜 주며 기타 훌륭한 인격을 형성시켜 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한 몸을 이룩하게 해주어 교회의 영적, 지적, 향상 계획을 촉진시켜 준다. 활발한 스카우트 분대가 있는 지부에서는 아픈신권 계획도 활발히 움직여 진다.

이제 시작된 스카우트 계획이 모든 한국 회원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게 되는 것이 선교부장단의 소망이다.

지부장단과 상항회장단에게 이 스카우트 계획은 청년 지도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후원 없이는 스카우트 소기의 목적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

\*\*\*

## 나에게 마이크를....

잘하든 못하든 대사는 힘든 것이요, 일단 대사를 치른 후에는 협조를 했던 안했던, 잘했네, 못했네 말이 많은 법이다. 이제 나에게 마이크를 돌려 준다면 한마디 좀 하고싶다. 5월 지방대회는 날씨가 좋았고, 선교부장님의 말씀이 좋았고, 성도들의 태도가 좋았다. .... 그러나 보통 일분정도면 끝나야하는 광고가 십분쯤 계속되고 보면 역시 일품이 아닐 수 없다. 산하 지부의 역원을 지도하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할 높은 지도자들이 순서마다 주를 달고 영적인 분위기를 방해 한다서야 될 말인가? 더구나 지방 부장님의 웅변이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살살이 서영춘"을 끌어 비교한 것은 너무도 큰 경거 망동이 아니었을까?

클레이는 권투 재주보다 떠벌이 재주가 더 하다는데 지방부 사회를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서 배운것은 아닐텐데. 좀더 자숙을! (인)



# 내 이웃에게도 축복을 나누자

부산지부장 배 영 천

한국 지방부에 속하신 여러 형제 자매님 그리고 배일문 한국 선교부장님 및 휘하의 여러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총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나 혼자만이 간직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며 이 교회에서 거듭날 수 있었던 나 혼자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만족하며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즐길려고 하지 않고 7명인 나의 가족과 함께 즐길려고 가족 전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배일문 선교부장 및 천낙서 장토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과 성경으로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여러사람들도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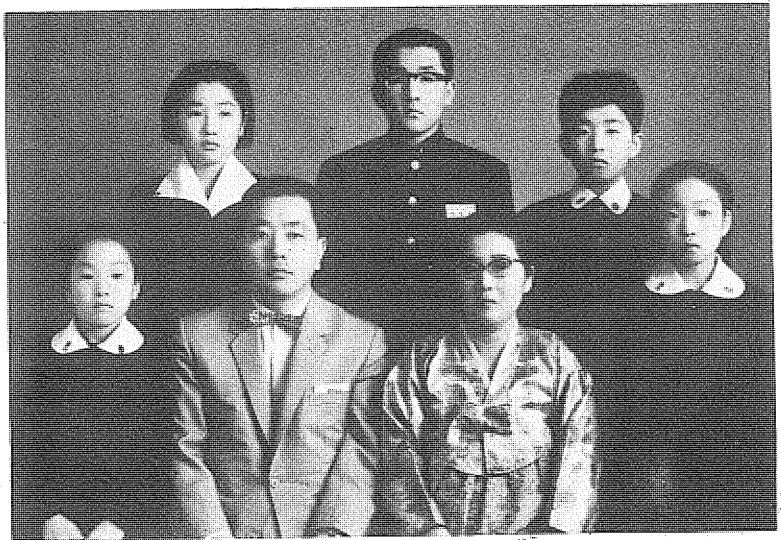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부산 지부장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된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 드리며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 잠성한 이 부산지부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만이 천국에 가서 내세를 즐길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반가워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다같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형제 자매님에게 부탁하고자 함은 나 혼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오니 욕심을 버리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들에게도 다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성취될 때까지 피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백영천 지  
부장님의  
가족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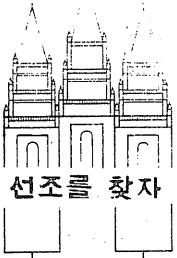
# 제1회 한국 선교부 주최

## 농구대회 참가기

한국 선교부 주최 농구대회 서울지역 예선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4월 16일 서울 삼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첫 대전으로는 우승팀인 삼척지부와 서부지부와의 대전이었는데 최후까지 있는 힘을 다해 고집한 서부지부가 삼척지부의 질서있는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둘째 게임으로는 작년 지방부 주최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동부지부와 고마지부인 청운지부의 대결이었는데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던 관계로 청운지부에 무참히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 준결승전은 각각 대결지부에서 승리한 삼척지부와 청운지부와의 대결이었다. 동부지부와의 경기에서의 피토를 회복하지 못한채 계속한 까닭과 대부분의 선수가 고등학생들이던 청운지부는 끝까지 분투하였으나 삼척지부에 패하고 말았다. 영남지역에서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의 첫 대결에서 부산지부가 이겨 부점승으로 올라온 부산동구지부와 부산지부가 준결승으로 대결하여 부산지부가 승리를 하여 서울에 원정을 영예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결승전은 4월 30일 덕성여고 강당에서 선교부장님을 위시하여 지방부장단 및 각지부 지부장님들의 임석아래 영남지역의 우승팀 부산지부팀과 서울지역의 우승팀인 삼척지부와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득점 성적은 초반전부터 부산지부가 열세여서 삼척지부의 일방적인 득점으로서 총 득점 72대 27이라는 많은 차이로서 게임이 끝났는데 멀리 부산지부에서 올라온 원

점팀에 대해 서울의 지부가 손쉽게 대접이 아니라고 삼척지부에게 양보하도록 권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정신아래 미안하지만 우승하였다는 삼척지부 선수들의 후일담이었습니다. 이번 농구대회에서의 총평을 들어보면 과업 노력 끝에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우승한 삼척지부는 한 지부장이 취임한 이후 첫 행사로서 지부장이하 모든 선수가 대회 2개월전부터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삼척지부가 획득한 우승컵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한가지 섭섭한 것은 일부 지부에서는 참전의 의욕이 희박한 지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모든 지부가 이러한 기획을 통해서 적극 참여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관중들의 태도에 있어서 동부지부 응원단이 질서 정연하게 또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응원을했다는 데 대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선수 일동들은 각자의 실력을 과신한 탓인지 전 선수가 함께 모여 단 한 번도 연습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대회에 임하는데 있어서 이번의 참패는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는다.



##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올봄들어 파릇 파릇 돌아난 새 잎이 짙은 녹음으로 옥여져  
땀에 젖은 길손들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난 2월 지방대회를 계기로 엘리야의 영에 감동받은 성도  
들이 한잎 두잎 매꾸어 오는 가족 기록서는 어느새 우리 선조  
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쁨을 하나 하나 마련해가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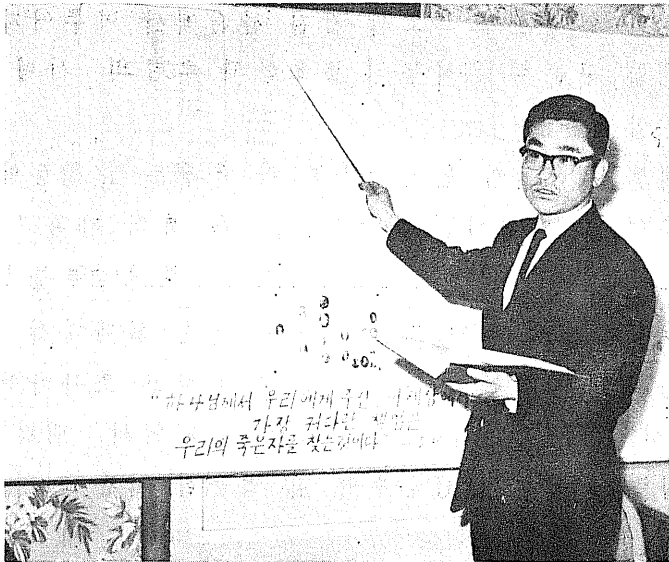
그 동안 서울 지역에서는 매월 계보 위원 전체 모임을 가  
졌고 지난 4월 12일에는 선교부 계보 위원회에서 준비한 말일  
성도의 신전에 대한 영화를 보프로서 직접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은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들의 중요함과 우리의 사명감  
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각 지부의 계보 위원들이 늘어감에 따라 위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그간 작성된 가족 기록서를 통해 가족 기록  
서 작성 요령을 검토받기 위하여 제1차로 가족기록서 2부를 쉐  
트레이크에 있는 계보협회 동양 담당 위원인 쉐슨 형제에게 보  
냈다. 우리의 문자로 기록한 가족기록서 곧 우리가 조사하여  
기록한 가족기록서 하나 하나가 멀리 이국의 신전에서 대리  
죽은자를 위한 침례와 안수와 신권수여 및 영원한 결혼과 가족

인봉 의식을 수행하는데 쓰여지고 그렇게 하므로서 직접 우리 선조의 구원을 위한 문호를 넓게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개는 무량하게 된다. 현재까지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온 분은 신촌지역 셋, 서부지부 아홉이며 아직 완전한 조사와 기록이 끝나지 않아서 제출치 못한 여러분이 작성도중에 있음을 지부 계보 위원들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우리는 지방부장단회 평의회 회 및 각 지부 지부장단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해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하도록 권고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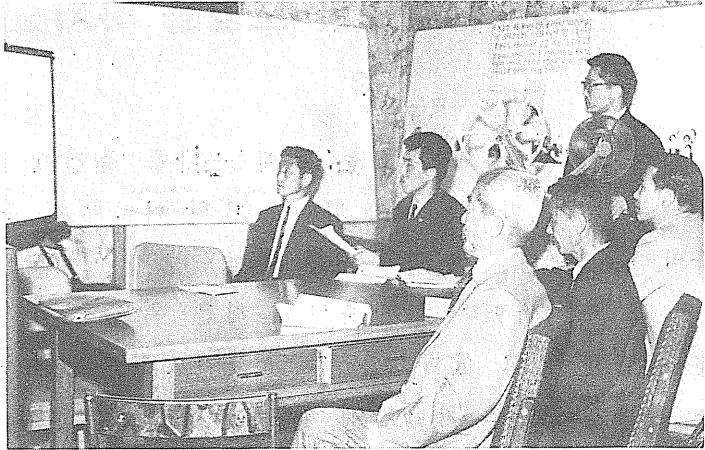
그동안 선교부 계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족보를 수집해 왔으며 현재까지 선교부 계보도서실에 수집된 족보는 약 150권에 달한다. 앞으로도 마이크로 필립으로 찍어둘 수 있도록 계속 족보를 수집할 것이며 그 밖의 모든 참고 문헌 및 자료들을 모을 것이다.



가족기록서 작성의 의의를 설명하는 지영달 형제



신 권에 관한  
엄 화를 보고  
있는 계보 위  
원들.



금년도의 목표로 자기가족 기록서와 자기부친 가족기록서와 자기의 모친 아버지 가족기록서 작성을 정하였다.

지부 위원들의 활동 사항을 둘러보고 가족기록서 작성을 지도 및 계몽하기 위하여 6월과 7월 사이에 선교부 계보 위원이 각 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조사하고 작성하는 가족기록서를 통하여 신앙있는 성도들이 선조들의 구원을 위해 십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전망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 기록서 작성을 권하는 바이다.

( 영 )

## 음악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정 대 판 형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 하리라. (교리화 성약 25장 12절)

음악이 예배와 불가분리한 것은 위의 경전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세련된 악기소리,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예배인 것이다.

만일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감한 요새요"와 같은 힘차고도 웅장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지 못하였다면 아마 위대한 종교 개혁은 실패로 돌아 갔을 것이며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존 웨슬레의 찬송가를 만들어 주는 도움이 없었다면 영국 국교에서 독립한 감리교를 창립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며 미국의 유명한 무디 전도단이나 오늘 날 세계적으로 전도의 선봉을 이끄는 빌리그레함 목사의 힘찬 설교에 아틀다운 테너 가수의 노래가 끼여 있지 않다며는 많은 개종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기 할만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악기 사용을 금한 종교단체는 그 수명이 길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퀘이카 교도는 가정에서조차 음악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퀘이카 교도는 한 사람도 볼 수 없는 실정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그 어느 종파에서도 따를 수 없는 음악에 대한 훌륭한 이  
념과 원칙을 가진 우리 물론은 음악적 재질을 어느 민족보다 뛰  
어나게 지닌 한국에서 그 꽃이 활짝 피어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4월 8일 동부지부에서 교회 음악에  
정열을 기울이시며 올곧은 연주에 있어서 한국의 권위자이신 궤  
삼수 교수를 모시고 지휘자 반주자들이 알찬 공부를 하였다.  
선교부장님의 간곡한 격려의 말씀에 이어 한 인상 형제의 간이  
메트로놈 사용법은 궤 교수에게도 새로운 흥미 있는 과제였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 제 속도를 찾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중  
요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주자반과 지휘자  
반으로 갈리어 한 인상 형제가 지휘자 반을 맡아 인도해주었고  
궤 교수께서 반주자 반을 맡아서 종교 음악이 예배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 그리고 악기는 올곧이어야 한다는

음악  
지도자들이  
궤교수님을  
모시고



것 등, 좋은 말씀과 올겐 연주의 기본적인 사항을 가르쳐 주셨다.

각 지부에서 반주자와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며 많은 바 사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충분한 연습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긴밀한 연락 협조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명을 유감없이 수행하도록 합시다.

\*\*

\*\*

\*\*

### " 계보 위원회 광고 "

각 지부 계보위원회 월례모임이 다음과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각지부 계보위원 및 계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둘째주 수요일 오후 7시, 넷째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선교부 계보 위원회 도서실.

선교부 계보위원들은 계보사업의 중요성을 선양하고 회원들의 계보조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각지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촌 지역모임            6월 9일

서부지부                6월 19일

청운지부                6월 26일

삼척지부                7월 10일

동부및 성북지역 모임        7월 17일

#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서부지부 윤 덕 병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런 목적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점에 다달을 것이다. 그 날이 언제 닥쳐 올른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죽음의 날이 한번은 꼭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지각한다. 나는 어디로 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앞으로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이 명제야말로 가장 근본 문제인 것이며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줄로 안다.

나는 혈육을 부모로부터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부모가 나라는 인생의 제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어버리면 글자 그대로 무토 돌아가 버리는 허무한 존재일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어느 철인은 말하고 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까닭은 바로 영혼을 가진 까닭이라고 한다. 영혼을 다르게는 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내지 이성은 비물질적인 것이므로 육체의 소멸 즉 죽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영혼의 영생을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무신론자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옛 철인은 말하기를 "인생은 목적적인 존재"라고도 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든것을 속이 시원하게 알아야만 만족하는 법인데 남의 문제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 이 문제를 알아 없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인가! 인과율의 법칙에서는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고 한다. 이것은 과학에도 인용되는 법칙인 동시에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쓰이는 법칙인 것이다. 자연 현상으로 나타난 하나의 사실을 응시한다면 그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총묘한 조물주의 예지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연현상속에 감추어져 있는 초자연의 신비, 일목 일초도 그 속에는 조물주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랴!

생각이 여기까지 이룸에 "나"라는 존재는 부모를 중개자로 하는 조물주인 하나님의 목적적인 피조물임을 단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즉 나는 혈육을 부모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영혼(이성)을 조물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신하게 믿는다. 여기에 이르러 나는 "우연유"가 아닌 "필연유" 즉 하나님의 유목적적인 의도아래 창조되어진 나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나는 나의 원인의 원인 즉 제일원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발견(깨달음)하였다.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 놀다가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간다. 부모의 품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지내다가 언제인가 한번 올 그 때에는 나의 제일원인인 하나님의 품안에 들어 가야 하겠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다. 열매를 백배로 겹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 있다.

드디어 추수기를 맞이하여 여문알맹이는 창고속에 들어갈 것이며 여물지 않은 죽데기는 거름간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평생을 살고 나서는 어차피 판단함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왕이면 알찬 열매로서 주인의 귀염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죽어도 죽데기로서 버림은 안 받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바이다.

나는 눈깜작할 사이에 지나는 이 인생을 착하게 살다가 인생의 종말에 가서는 나의 제일 원인인 하나님의 품안에 알찬 열매를 맺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불러들임을 받을 것을 희구하면서 하루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값있게 살아 보련다.

내일 있음을 믿지 말고 나의 삶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라는 엄숙한 시점에서 죄 안짓고 착하고 거룩하게 미결없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다짐하면서 살아 가련다.

5월 8일

# 우리 어머니

동부지방 유년주일학교 유 옥 자

저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왜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 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여지껏 아무일 없이 잘 키워서 이만큼 자랐어요. 그것은 다 어머니 덕택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잘못하면 잘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국무총리랍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잘 타이르시고 또 저희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잘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 엄마는 참 좋은분이십니다. 그리고 밤이면 집안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과 더불어 행복하고 단란한 하루를 보내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전부 어머니 덕택이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희들을 낳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저희들을 낳으시고 잘 키워서 이렇게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날에는 제가 어떠한 힘을 들고서라도 빨간 카네이션을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겠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 멘.



## 한국 지방대회를 마치고

5월은 칙례요한이 부활한 몸으로 지상에 와서 죠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신권을 수여한 달이다. 따라서 지난 5월 21일 22일 양일간에 열렸던 66년도 제2차 한국지방대회에서는 신권의 회복을 기념하며 신권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죠셉 스미스서 2장 69절을 신권회 주제로 택하였고, 제1총회의 주제는 전예를 바꾸어 주제를 정하지 않았으며, 제2총회의 주제는 앞으로의 우리 성도의 감질을 다짐시키는 전도서 12장 13-14절을 택하였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소고로 값싸고 먹음직한 점심이 준비되어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선교부의 시원한 정원에서 모처럼 형제자매애를 정답게 나눌 수 있었으며 옹기 종기 숲속에 둘러앉아 진미에 담긴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은 카메라에 담아두고 싶은 보기 드문 값진 풍경들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얻어진 또하나의 수확은 기교를 살린 동부지부의 합창이었다. 알맞게 짜여진 합창대원의 수효와 오건식 형제님의 눈에 띄이게 안정된, 여유있는 지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박수를 받음직 하였다.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지방부장단과 지방부 평의원들만이 맡아왔던 예를 바꾸어, 말씀하실분들을 각 지부 지부장단들로 정하고 지방부 평의원들이 개회기도를 맡았다. 신권회 대회로부터 제2총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쏟아진 말씀들은 모두가 회원들의 마음에 실천을 강조하는 신

암의 불길을 북돋아 주었고 강한 간증을 부어 넣어 주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 소재를 택하여 말씀하신 팔마 선교부장님과 이 호남 지방부장님의 말씀이다. 대회를 통하여 강력히 각성시켜야 할 만큼 선교부장님의 눈에 비쳐진 성도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하나도 단합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듣는이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성도들이 뿔뿔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느껴진 지도자의 고독감이 표현된것 같았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난 지금 개운치 않게 여겨지는 점을 몇가지 적어보면 우선 신권회 대회시의 아론신권 소유자 특별합참이 준비되지 못한채 제창이되어 귀에 거슬렸고 시간에늦게 오는 회원들이 여전히 대회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였다는감이 어쩐지 마음 상하게 했다. 이 밖에도 사회자들의 지루하고 속된 덧붙임과 약속된 시간의 엄수 관념이 결여되었다는 인상이 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짜증으로 변화시킨 감이 있는 듯 하였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대회장의정리와 안내를 맡아 훌륭하게 해주신 동부지부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끝으로 참고삼아 이번대회의 참석수를 지부별로 적어둔다.  
(지참자는 포함되지 않음)

신권회,	청운 24,	서부 13,	신촌 2,	삼정 16,	동부 25
	성북 4.				
제일총회,	청운 58,	서부 13,	신촌 14,	삼정 44,	동부 60,
	성북 14.				(달)

## 배움의 등불을 찾아서

여기 자랑스러운 한 형제가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채 구령산 골짜기에서 이웃들로 부터 "회장", "갑인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정 삼식 형제.

그는 참된 몰몬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정 형제는 구령산 비탈에 있는 그의 낡은 판자집을 열어 불우한 소년 소녀들을 모아 매일 5시간씩의 글을 가르친다.

필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어둠이 깔린 골짜기에 글귀소리가 메아리치고 비록 교과서가 없고 초라한 가마니위이지만 이들의 교장이며 감사이신 배움의 등불 정형제를 찾아 모여든 빛나는 여러 눈동자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7년전 부산대학교를 졸업 다시 대전 신학교를 거쳐, 성서신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담당함 바 있었고 그의 숙원이던 불우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을 주는 일에 착수 순수 의자와책상을 만들어 배움의 집 이듬하여 "한림 가정 학습원"을 세웠다.

그의 슬하에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고 그가 시간강사로 버는 수입과 그의 부인이 수혜를하여 버는 돈을 모두 이 학습원의 경비와 학생들의 일터 마련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정형제님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은 제대로 먹고 입을 수 없다. 이러한 남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가난 때문에 배울 수 없었고 무지 때문에 악의 구렁이에 빠질뻔 했던 가련한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평생의 포부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러한 기획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오히려 감



정삼식 형제

사하며 맑게 웃음을 짓는다.

초라한 그의 방에는 "봉사 유공자 표창장"이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그는 1963년 2월 3일 칠패를받았고 부산지부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에겐 시련이 왔다. 가사를 돌보고 이 학습원의 유일한 보조자였던 그의 부인이 앓아 누운 것이다. 병석에 누운 그녀를 그는 그의 재산인 사랑과

기도와 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다.

필자가 정 형제님의 집을 나올 때도 가슴에 벅찬 그 무엇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길 이 글을 읽으시는 멀리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와 격려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빛을 놓습니다.

부산지부 한혜자 자매

## 해 외 소 식

라성지역 한인지부 세 소식

- \* 초창기의 한국선교에 많은 수고를 하셨던 안대산 장로(Dean M. Anderson)는 유타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 \* 귀환 선교사의 한 분인 하근수 장로(Ray Hawkins)는 1966년도 풀부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0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고 하며 이번 여름 나성지역 한인지방부장 이영범 장로와 동행하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또한 1966년도 미국무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영범 장로는 가족 방문과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성도와 한국에 있는 성도간의 보다 친밀한 연관을 맺기를 바란다고 한다.
- \* 최근 나성의 홍 병식 장로는 득남하여 온 가족이 한국의 선교사 후보가 또 하나늘어 기뻐하여 이제는 홍 장로는 1남3녀를 거느리는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하와이에서 온 편지

안 상 인 형제

그리운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 하와이의 소식을 늦게 전해 드리게 됨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친절히 보내주신 "성도의 벗"에 대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형제 자매님 소식과 교회의 발전을 아는 것은 오직 "성도의 벗"을 통해서이며 이것을 받아보는 날이 무척 저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그리운 점을 더욱 불어 일으키게 하는때이기도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교회, 여러분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을 받는 날이면 여기 형제들과 한국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한국물론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 오는 "성도의 벗"과 비교하면서 날로 늘어가는 형제 자매들과 구슬땀의 노력이 새겨져 있는 "성도의 벗"에 대해 항상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한국의 선교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흐뭇함을 느끼며 카 선교부장님의 뒤를 이어 팔머 선교부장님의 힘찬 노력이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의 노력에 또한번 감사하고 싶군요.

저의 대학은 물론 대학이라서 80%가 물론이며 교정안에는 2개의 워드가 구성되어 있고 감독은 대개가 교수들로서 구성되

어 있으며 회원은 남녀 대학생으로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은 찬송가를 부를 때입니다. 쏘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개의 부분으로 부르며 그 화음이 정확히 되어 나음이 저를 늘 감탄하게 만듭니다. 원래 음악에 소질이 없는 저는 그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합창단과 똑같이 느껴져요. 저의 한국 몰몬도 그러한 날이 오기를 빌겠어요. 정말로 아름답더군요. 특히 워트대회에 나갔을 때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을 보았어요. 합창단이 100여명이나 되는데 거의가 60여세가 넘는 형제 자매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조화되어 나오는 성스러운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속에 저 자신이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영감을 주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어떤 순서로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성찬식을 아침에도 하더군요. 즉, 1. 광고, 2. 개회찬송, 3. 개회기도, 4. 연습찬송, 5. 2분반 이야기, 6. 성경봉독, 7. 성찬분배, 8. 분반, 9. 분반에서 폐회를 하는 것을 보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성찬식이 있고 그것이 끝난뒤 매주 화이어사이드 미팅이 있어요.

제가 있는 이 학교에서 500미터 옆에 하악이 물론 신집이 있는데 그 웅장과 주위에 운치는 어떤 동화에 나오는 꿈의 세계에서 한 장면 같으며 부족한 문장이기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많은 방문객이 여기를 거쳐가며 방문록을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쳐간 것을 보니 기쁘더군요. 그리고 이 학교 오른쪽에는

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든군요.  
Pacific island 의 섬들을 소개한 것이며, 밤에는 각국의 특이한 댄스가 있어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어요.

이 학교에는 현재 9명의 한국 학생이 있어요.(남6, 여3) 2분은 하와이 대학교로 지난 학기에 가셨으며 그대신 새로 3분이 오셨어요. 3분이 다 몰몬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2분이 여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분은 교리를 공부중이며 여기에 계신 단 하나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신 선생님이 침례를 주셨으며 부족한 제가 안수를 할 특별한 축복을 받았드랬어요. 여기서도 한국인 성도가 늘어감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라고 있습니다.

학교공투에 늘 쫓기고 있어서 일일이 여러분께 인사를 못드리고 있음을 늘 죄스럽게 생각하며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건강과 교회의 발전을 기도합니다. 혹시 형제 자매님들에게서 아시고 싶은게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아는한 즐겁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에 더 쓰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 주시기를 빌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 各支部 消息

### — 부산지부 소식 —

올해들어 세번째로 묵묵히 열의로서 일하시던 "시먼스" 장로님에 뒤이어 새로운 신임 지부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지부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게 될 신임 배영천 지부장님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서 부산지부엔 새로운 물문 가정의 탄생하여 모든 회원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천 지부장님의 이 새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여러 회원들과 함께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래전 발간이 중단되어온 "상향회 발간신문이 여러형체와 자매들의 귀한 말씀을 담백 실고 탐스리히 다시 빛을 보게되었습니다. 상향회 발전에 여러모로 수고가 크신 회장 신 홍규형제의 분발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올들어 더욱 상향회모임은 활기를 띄기 시작하여 사울 찻주 모임에선 그간 얼마해온 재능을 발표한 예술의 밤을 가졌습니다. 음악, 무용, 시, 연극 등 다채로운 순서로 여러 이웃과 벗님들을 모신 이 모임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1966년 3, 4월 한국지방부 칙례자 명단

부산 지부

박석협 (남)	이두태 (남)	최재호 (남)	방미자 (녀)
김순정 (녀)	박이남 (녀)	배참근 (남)	장영수 (남)
배인숙 (녀)	배후근 (남)		

부산 동구지부

이영자 (녀)	박선희 (녀)	홍성태 (녀)	고태화 (녀)
고옥상 (남)	김경애 (녀)	백숙미 (녀)	국수정 (녀)
이세연 (남)	안정일 (남)	신해절 (남)	서두선 (녀)
박정옥 (녀)	정병애 (녀)	전승혜 (녀)	조광주 (남)
하운원 (남)			

청운 지부

김종갑 (남)	차연옥 (녀)	차승각 (남)	최 정 (녀)
오경나 (녀)			

동부 지부

김인순 (녀)	이정희 (녀)	차미선 (녀)	홍성택 (남)
이순희 (녀)	김순자 (녀)	서수석 (녀)	김옥란 (녀)
이수환 (남)	신재구 (남)	민대현 (남)	유성옥 (녀)
구유자 (녀)	이규희 (녀)	이광배 (남)	곽성근 (남)
이광일 (남)	윤호병 (남)	김순자 (녀)	차 풍 (남)
정흥락 (남)	박진갑 (녀)	김미희 (녀)	이재희 (녀)
김영중 (남)	이광자 (녀)	박영애 (녀)	김간난 (녀)
황우희 (녀)	이순애 (녀)	정확영 (녀)	

1966년 3, 4월 한국지방부 칩제자 명단

서부 지부

김사원 (남)	김동숙 (녀)	김정옥 (남)	김인숙 (녀)
장희식 (남)	연수정 (녀)	김상훈 (남)	김상숙 (녀)
유관옥 (녀)	우제관 (남)	김종혜 (녀)	최양신 (녀)
이 조 (녀)	최종목 (남)	정진영 (남)	이명자 (녀)
조혜옥 (녀)	고중자 (녀)	우정감 (녀)	백종식 (남)
이화자 (녀)	우정희 (녀)		

삼청 지부

유 흥 (남)	김승희 (녀)	장지현 (녀)	이기호 (남)
임선태 (남)	이옥순 (녀)	김세훈 (남)	

신촌 지역

박영옥 (녀)	홍성표 (남)	정순금 (남)	이남엽 (남)
양능수 (남)	이정엽 (남)	고풍자 (녀)	조혜옥 (녀)
최종목 (남)	최양신 (녀)		

성북 지역

이계관 (남)	정찬옥 (남)	임복순 (녀)	서기춘 (남)
민경애 (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 教 部

(住 所 錄)

- 宣 教 本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清 雲 支 部 } ⑦③ 3995
- 三 清 支 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② 3596
- 東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⑦③ 1005
- 西 部 支 部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③ 1208
- 大邱中央支部 }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 釜 山 支 部 }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 東 區 支 部 }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166

성 도 의 벗

- 發 行 人    스펜서    제이 · 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 輯 人    具    重    植
-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本部